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연중 제22주일

2020년 8월 30일(제444호)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사이트: www.tvkcc.org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주일학교	오전 9시 - 10시, http://tvkcc.org/sundayschool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 매 주일, 화, 수, 목 미사 후
	성령기도회 / 매 주 토요일 미사 후
	울뜨레야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 기도회 / 매 주 금요일 7시
성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미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English Mass	10:30 AM - 11:30 AM
	평일미사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Youth Mass	매달 격주 토요일 오후 5시 (주보 공지)
고해성사	매 주일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해설_이경원(아르텔라)

입당송 | 시편 86(85),3,5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제1독서 | 예레 20,7-9 Jeremiah 20:7-9

화답송 | 시편 63(62),23-45-68-9 © 2c 참조

Psalms 63:2, 3-4, 5-6, 8-9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My soul is thirsting for you, O Lord my God.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O God, you are my God whom I seek; for you my flesh pines and my soul thirsts like the earth, parched, lifeless and without water.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Thus have I gazed toward you in the sanctuary to see your power and your glory, For your kindness is a greater good than life; my lips shall glorify you.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Thus will I bless you while I live; lifting up my hands, I will call upon your name. As with the riches of a banquet shall my soul be satisfied, and with exultant lips my mouth shall praise you.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 You are my help, and in the shadow of your wings I shout for joy. My soul clings fast to you; your right hand upholds me. ◎

제2독서 | 로마 12,1-2 Romans 12:1-2

복음환호송 |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May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enlighten the eyes of our hearts, that we may know what is the hope that belongs to our call. ◎

복음 | 마태 16,21-27 Matthew 16:21-27

영성체송 | 시편 31(30),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 저의 하느님 제 - 영 - 혼 당신을 목말라하 나이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이순욱 마리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맙소사, 주님!” 예수님의 수난 예고를 듣고 수난을 반대하며, 베드로가 내뱉은 말입니다. 지난주 복음에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100점짜리 신앙고백으로 제자 중의 으뜸이 되더니, 오늘은 정반대로 사탄이라는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는 입으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주님 대전에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는 100점짜리 신앙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스스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동안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지금은 그나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혼란을 틈타 혹여나 우리는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봅니다.

참된 신앙이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달거나 쓰거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에게서 인정받고 이해받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일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오늘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고백한 것처럼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어도” (예레 20,8)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값지고 소중한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갖은 노력과 희생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하며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해야” (로마 12,1-2)합니다.

신앙생활은 순간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욕심대로만 산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마태16,24) 합니다. 아멘.

김광근 도미니코 신부 | 총대리 겸 사무처장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 416. 9249 julia.kim@kw.com kw</p>	<p>MassMutual 건강보험, 생명보험, IRA 연금(Retirement Account) 장기 간호보험 401(k) Ropover 허 세실리아 925-642-0756</p>	<p>KOREAN B.B.Q 영동 순두부 7268 San Ramon Rd. Dublin, CA 94568 925-551-0825</p> 	<p>I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박 권 한 의 원 한의학박사 박 권 부인과, 내과, 체질, 비만, 불면 7025 Village Parkway, DUBLIN, CA 94568 925-577-0288</p>	<p>혁신적인 항노화 제품과 훌륭한 사업기회  민주란 아우레아 253-468-3030 jooranmin@gmail.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5분 묵상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직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한 반도를 두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관광하면서 자국의 이익만 따지며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느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셨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설교에서 모세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는데, 그 광야에서도 그렇게 싸워 주셨다."(신명 1,31). 잘 느끼지 못했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큼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를 등에 업은 것 같이 인도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외면하고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예"라고 응답하며 주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 마리아도 생애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성모님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래도 그분은 하느님이시다'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도 성모님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흔들림 없이 평화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니다.

-굿뉴스에서-

 <p>마이클 엠 부동산 01363182/Legacy REA 주택, 상업용 건물 전문 북가주 전지역 Cell: 925-577-1117 michael.aom@gmail.com</p>	<p>새차 12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p>  <p>잭성 HILLTOP FREMONT DAVIS 직통:510-662-4036 3233 Auto Plaza 43690 Auto Mall Cir. 4202 Chiles Rd. Cell:510-776-5856 510-243-2020 925-640-1004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925)549-2414 1241 Quarry Ln. Ste 110 Pleasanton, CA 94566 www.eecschoo.c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glish, Math • History, Physics, Chemistry, Bio • PSAT, SAT, ACT • College Counseling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500 Dublin Blvd. #206 Dublin CA 9456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님 비자 진행 상황

- 7월 20일부터 주한 미 대사관 비자 업무가 재개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받으실 비자(R)는 이번 1차 업무 개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사관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인터뷰 일정이 잡힐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 신부님의 일정이 앞당겨 질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꾸리아 9월 월례모임

- 일정: 9월 2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
- 대상: 각 브레시디움 간부들
- 참석방법: 꾸리아에서 지정한 Zoom 미팅
- 준비물: 묵주, 레지오 교본, 기도문

■ 성모회 주관 공동구매 안내

- 품목: 도토리국수, 참기름, 들기름, 각종 곡류, 마른 나물, 오징어채, 북어채
*도토리국수는 70 Box 이상 일때만 판매 가능 (주문 집계 후 판매 여부 공지).
- 용량, 가격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성모회 조장님, 요아킴안나회 부회장님, PTA 회장님, 생활성가 팀장님
- 주문 : 위 단체(문의처)별로 주문 하시되 소속단체가 없으신 분은 성모회장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세라피나, 925 989 8837)
- 주문 마감: 9월 2일(수)
- 픽업 날짜: 9월 6일 주보에 공지 예정

■ 센터 방문 및 미사참례 시 준수 사항

- 자신과 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 손 소독제, 살균티슈 등 각자 준비하여 수시 소독합니다.
- 문 손잡이, 계단 가드레일, 테이블 표면 등을 만지지 않습니다.
- 미사 전 과정(영성체 제외)과 미사 후 마스크 착용합니다.
- 최소 6피트 거리 유지합니다.
- 미사 후 즉시 차에 탑승, 귀가합니다.

■ 본당 센터 출입 제한

- COVID-19 방역 강화 차원에서 봉사자를 제외한 일반신자의 센터 출입을 제한합니다.
- Lock Box 폐지
- 방문 필요시 주일미사 후 짧게 방문해주시시오.
- 긴급사안이 있을 경우 각 반 반장님을 통해주시시오.

■ 주일미사 신청 안내

- 미사 집전: 윤지운 스테파노 신부님
- 미사 횟수: 주1회, 주일미사
- 미사 시간: 오전 9시
- 참가 신청: 각 반 반장
- YouTube 시청: TVKCC Mass

■ 북가주가톨릭성서모임 2020년 2학기 성서 40주간 신청 안내

- 개강: 2020년 8월 29일(토) / 8월 31일(월)
- 방학: 12월 둘째 주
- 시간: 월요일 오전반: 온라인 Zoom 강의
토요일 오후반: 온라인 Zoom 강의
- 대상: CBLM 말씀의 봉사자 및 전체 교우
- 문의: 조경아 글라라(408 701 7144, nccblm@gmail.com)

■ 온라인 미사참례 헌금 안내

- 직접 미사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giving-2

■ 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

- 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tvkcccliturg@gmail.com
- 봉헌금: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
- 신청시 기재사항은 각반 연락망을 통하여 공지되었습니다.
- Check Payable to: TVKCC

■ 미사참례를 못하실 경우 '대승'으로 미사참례를 대신합니다.

1. 방송(온라인, TV, 라디오)미사에 참여합니다.
 2.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에 따르며 '신령성체 기도'를 바칩니다.
 3.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조차 어렵다면 묵주기도와 성경 읽기(그날의 독서와 복음)로 대신합니다.
- *기도문 등 참고 자료는 3월 14일자 이메일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510	-	-	\$950	\$30	\$60	\$1,550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8), 송형철(8), 이재실(7-9), 조원정(8,9), 조희진(7,8)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8), 이재실(7~9)
- **Bishop's Appeal**
김성치(8), 이재실(7~9)
- **성전건축 헌금(Building Fund)**
조원정

- ◆ PMS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니다.
- ◆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tvkcc.org

◆ 본당 신부님과 면담 및 고해성사 시간 안내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 주일: 오전 8시 30분 - 오전 9시
- 이외의 시간도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예약이 가능합니다.